

민주 '반쪽개혁'에 그치나

개혁특위, 총선 공천 기준 현역 기득권 제한 방법 못내봐 대선 후보만 완전 국민경선으로...27일 최종안 도출 예정

민주당 개혁특위가 오는 27일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반쪽 개혁안'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혁특위가 정책당원제, 정당원 투표제, 슈퍼스타 K 방식(공개 배심원단 평가) 도입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는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혁의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개혁특위는 지난 20일 영등

포 중앙당사에서 6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대선 후보를 모바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은 전체 당원(대의원 20%, 당비당원 20%, 일반당원 60%)의 투표로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한편, 시도당 위원장 선출에도 전당원 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는 당원이나 대의원 비율을 별도로 두지 않고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특위는 선거인단(당원 50%+국민 50%) 투표를 공천 방식으로 제안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번복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동원경선 등의 이유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 '슈퍼스타 K' 방식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 오는 27일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총선 후보 경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도입된다면 인지도가 높고 조직력이 강한 현역 국회의원들이 유리할 수밖에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나라당 비대위원, 당직자들이 21일 광주 북구 운동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분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도당 방문 한나라 정의화 비대위원장

"차기 당대표 화합 최우선... 호남인사 비례대표 배려"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7·4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분열된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며 "계파 간 갈등을 넘어서서 당 화합과 단합을 위해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1일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 대표가 될 사람은 합리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며 "나이는 상관없지만, 사고방식이 젊어야 하고, 당의 미래를 지향하고 북한 관계, 복지 문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변화와 이명박 정부 1년 반납은 기간에 레인bow가 오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화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한 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한나라당의 위기 탈피는 전당 대회만으로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전당을 통해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벗길 바란다"라며 "특히 한나라당이 갖는 수구적인 태도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고, 이념 스펙트럼도 합리적인 보수에서 합리적인 중도까지 포함해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내년 총선에서 광주·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최소 1명 이상 당선되는 기적을 보고 싶다"라며 "비례대표는 광주와 전남·전북에서 노력하는 당원들 중 젊고 유능한 분들을 도시고 싶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당권도전 남경필 의원 광주서 기자간담회

"MB정권·한나라 국민신뢰 잃어...서민정책 기조 필요"

한나라당 당권도전에 나선 남경필 의원은 21일 "한나라당이 재집권하려면 보수 정체성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중도를 포용하는 등 외연을 확대하고 서민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 위기를 맞고 있다"라며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성공시대, 고소득층 성공시대가 아닌 국민성공 시대를 위해 감세철폐, 불가복등의 원인인 교환율·저금리 정책 등 국민 삶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대기업 수출 위주의 정책이 물가를 폭등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 때문에 서민은 팍팍한 삶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하고 여기서 한나라당의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한 "4대 강 사업과 토목관련 SOC사업 유지에서 벗어나 교육과 복지에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새로운 인물과 정책으로 한나라당을 확 바꾸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 "최근 당내에서 정체성 강화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소수인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계속하려면 중도를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제대로 된 보수는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부패로 썩었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했던 잘못을 일반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고 도덕성을 갖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전국 군사공항을 구조조정해 첨단시설을 갖춘 군사공항 건립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된 군사부지에는 해당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형식 총리, 오늘 민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현안사업 국비지원 문제 등 논의

이날 간담회는 김동철 당대표 비서실장의 주선으로 이뤄진 것. 김 실장은 소속 상임위가 지역발전에는 큰 보탬에 안 되는 통일동아라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형식 총리는, 오늘 민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지역 현안사업 및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 문제 등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의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파탄난 서민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내년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절치 않더라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의 경우 총리실에서 참석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시도지사들도 예산 문제를 상의하자며 간담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광주시장만 만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간담회 전에 김 시장과 광주지역 의원들이 만나 광주시의 요구 사항을 들은 뒤 이를 김 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강기정 의원 예결위 간사 선임

민주당 강기정(북간) 의원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됐다. 강 의원은 "300억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한나라당의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파탄난 서민경제를 되살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내년 예산안 심사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서민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재정건전성 확보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선기의원 시의회 예결위장 선출

광주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임기 1년의 예결위원장에 재선인 진선기(민·북구 1) 의원을 선출했다. 또 예결위원 간사에는 진주연(민노·비례) 의원을 선출했고, 예결위원은 김보현·나종천·박인화·서정성·손재홍·조오섭·홍인화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신임 진선기 예결위원장은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하지만, 시민이 이해하지 못한 사업이나 전시장 행정과 관련한 사업은 금액의 과다에 관계없이 철저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현장조사

광주시의회의 '시 교육청 인사·계약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위원장 정희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일선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현장조사는 그동안 서류조사에서 나타난 수의계약 납발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문제, 시설 및 비품구매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1차 현장 조사는 3일 동안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3개교 등 6개교에 대해 실시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편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특수 방수 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